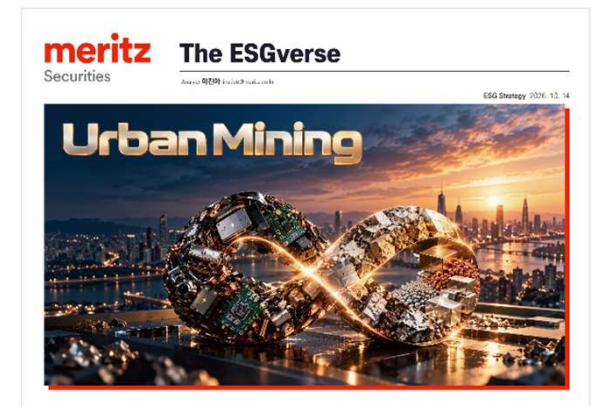




Contents

Summary	4
Part 1. 왜 지금 도시광산인가?	7
Part 2. Volume Bottleneck: 전력망이 구리의 병목으로	17
Part 3. Critical Minerals: 부족보다 집중, 채굴보다 정제	23
Part 4. 도시광산: 폐기물이 전략자원이 되는 순간	37
Part 5. 도시광산을 이익으로 바꾼 글로벌 리더	49



Urban Mining

1 왜 지금 도시광산인가?

- AI 투자 확대는 반도체를 넘어 데이터센터 → 전력 → 전력망 → 핵심광물로 수요를 확산. 이에 ESG의 질문도 'AI를 책임 있게 쓰는가'에서 '전력·전력망·용수·핵심광물을 지속가능하게 확보할 수 있는가(Physical ESG)'로 확장
- 에너지전환의 물리적 기반이 연료에서 광물로 이동. 전기차 1대당 광물 투입량은 내연기관차의 약 6배이며, 핵심광물은 공급망 집중과 수출통제로 국가안보 의제로 부상
- 글로벌 전자폐기물은 2022년 6,200만톤 → 2030년 8,200만톤 전망. 발생 속도가 공식 재활용보다 5배 빠르고, 2022년 공식 기록된 수거·재활용률은 22.3%에 불과
- 광물 수요의 구조적 증가와 미회수 자원의 축적이 맞물리며, 재활용의 목적이 '폐기물 처리'에서 '2차 공급(Secondary Supply) 확보'로 이동

2 Volume Bottleneck: 전력망이 구리의 병목으로

- 전기화와 전력망 투자가 구리 수요의 구조적 동력이며, AI 데이터센터는 가속 요인. 전력망용 구리 수요는 2020년 약 500만톤 → 2040년 약 750만톤 전망(IEA STEPS)
- 글로벌 구리 총수요는 2025년 약 2,800만톤 → 2040년 약 4,200만톤으로 약 50% 증가 전망(S&P Global). 재활용 확대를 반영해도 2040년 약 1,000만톤 부족
- 신규 구리 광산은 발견에서 생산까지 평균 약 17.5년 소요. IEA는 2035년 구리 광산 공급이 1차 공급 필요량 대비 약 25% 부족할 것으로 전망
- 시간 불일치 속에서 해법은 '신규 광산 vs 재활용'의 선택이 아닌 동시 확대. 기존 제련·정련 인프라와 구리 스크랩을 활용한 재생 공급의 가치 상승

3 Critical Minerals: 부족보다 집중, 채굴보다 정제

- 모든 핵심광물이 같은 부족에 직면하는 것은 아님. 2035년 예상 공급의 1차 공급 필요량 충족률은 구리 약 75%, 리튬 약 68%, 니켈 약 92%로 광물별 차별화(IEA STEPS). 따라서 부족 위험과 공급집중 위험을 구분할 필요
- 공급 리스크는 채굴보다 정제·가공 단계에서 심화. 자석용 희토류의 중국 비중은 채굴 60% → 정제 91% → 영구자석 94%로 다운스트림으로 갈수록 상승. 중국은 2024년 1차(저순도) 갈륨 공급의 약 98%를 차지
- 제련의 전략적 가치는 높아졌으나 수익성은 악화. 2026년 구리 벤치마크 TC/RC는 \$0/t으로, 부산물 회수 역량이 제련소 간 수익성 차별화 요인
- 핵심광물의 경쟁력은 매장량이 아니라, 분리·정제·가공을 거쳐 산업용 소재로 전환하는 Midstream 역량에서 결정

4 도시광산: 폐기물이 전략자원이 되는 순간

- 재생 공급은 1차 공급의 대체재가 아닌 완충재. IEA는 각국 기후공약 이행 시나리오(APS)에서 재활용 확대로 2050년 신규 광산 공급 필요량이 구리·코발트 약 40%, 리튬·니켈 약 25%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
- 국내 재자원화는 양극화. 구리 99.3%, 알루미늄 95.5%, 니켈 94.7%인 반면, 리튬 48.4%, 일부 희토류 원소는 0% 수준. 투자 기회는 '이미 잘하는 금속'보다 '아직 회수하지 못하는 금속'에서 확대
- 정책은 재자원화를 '폐기물 처리'에서 '핵심광물 제조'로 재정의.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수요의 20% 재자원화를 목표로 하며, 2026년 폐가전·폐차 희토류 영구자석 회수 실증에 착수
- 희토류 도시광산의 병목은 '회수'가 아니라 '분리'. 재활용 자체가 ESG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며, 실제 회수율, 에너지, 잔재물, 추적성으로 검증해야 함

5 도시광산을 이익으로 바꾼 글로벌 리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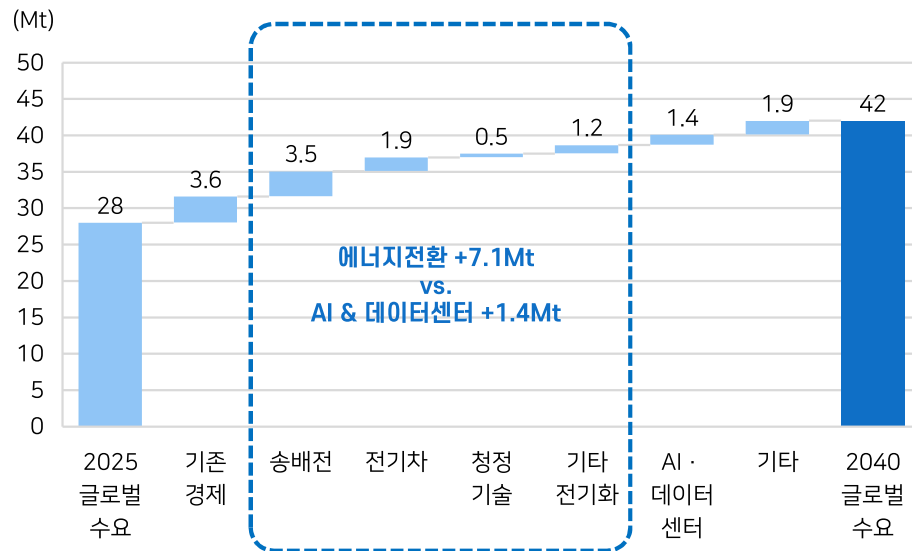
- 글로벌 도시광산은 3개 사업모델로 구분:
 - ① 통합 제련형(Aurubis), ② 폐쇄형 순환회수(Umicore), ③ 산업 부산물 회수형(Befesa)
-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은 명목 CAPA보다 실제 이익으로 전환하는 역량에 의해 결정
- 원료 확보 → 처리, 정제 → 금속 회수 → 판매처 확보 → 이익 창출로 이어지는 사업구조가 핵심
- 투자판단은 ① 공급망 병목에 대한 노출도, ② 원료의 회수, 정제 및 공급 역량 ③ 실적과 자본효율성을 고려할 필요

전력의 병목이 구리의 병목으로

The ESGverse
Urban Minin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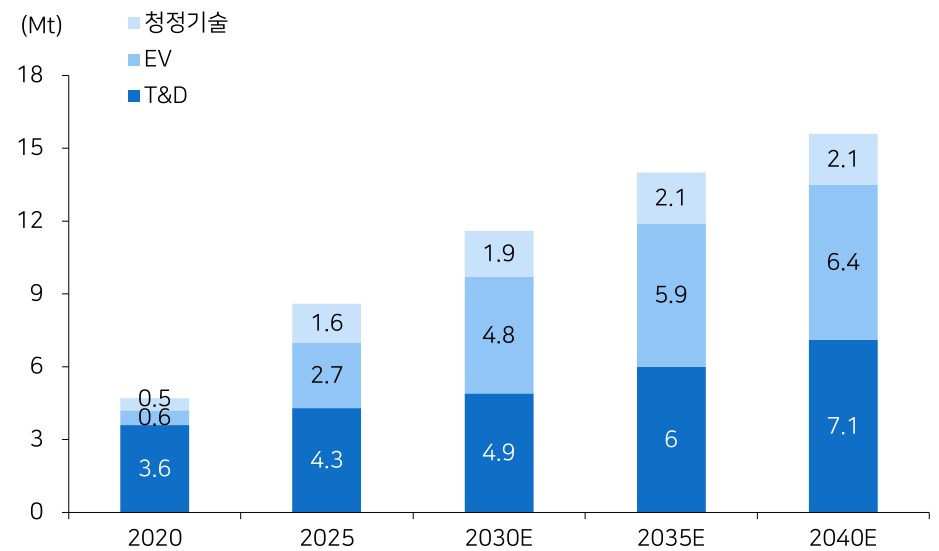
- 구리는 AI만의 광물이 아니라 전기화의 핵심 원료로 글로벌 구리 수요는 2025년 28Mt → 2040년 42Mt로 약 50% 증가 전망
 - ① 증가분의 중심은 전력망, EV, 청정기술: 에너지전환 부문 구리 수요는 2025년 8.6Mt → 2040년 15.6Mt(약 +7.1Mt 차지). 2040년 수요 규모는 송배전망(T&D)이 7.1Mt로 최대이며, 증가폭은 전기차가 3.7Mt로 가장 큼
 - ② AI 데이터센터는 구조적 수요 위에 추가되는 가속 요인: 데이터센터 구리 수요는 2025~2040년 약 +1.4Mt의 신규 수요를 더하며 이미 타이트한 구리 시장의 부담을 확대
- 따라서 구리의 병목은 전기화 전반의 누적 수요에서 발생. 투자 판단에서도 AI 단독 테마보다 Grid·EV·전력 인프라를 함께 봐야 함

2025→2040년 글로벌 구리 수요 증가 요인



주: 스크랩 직접 사용까지 포함한 총소비 기준
자료: S&P Global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에너지전환 부문 구리 수요: 송배전(T&D)이 최대 비중 (2020~2040E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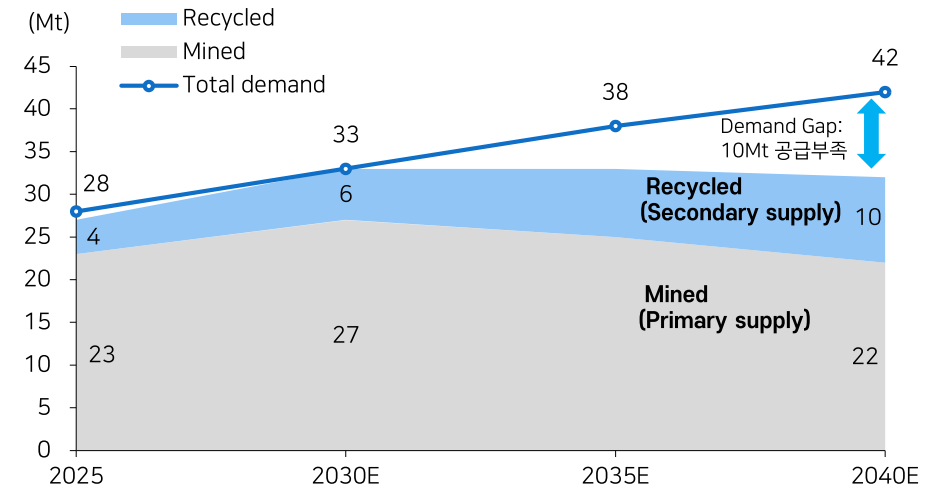
자료: S&P Global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Primary와 Secondary를 동시에 늘려야 하는 이유

The ESGverse
Urban Mining

- 의미 있는 신규 공급 확대가 없다면 1차 광산 공급은 2030년 전후 정점을 형성한 뒤 감소, 2040년에는 약 22Mt까지 낮아질 전망
- 재활용 공급이 크게 확대되더라도 공급부족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. S&P는 2040년 구리 수요를 약 42Mt, 공급부족을 약 10Mt(수요의 약 24%)로 전망하며, 이는 재활용 확대를 반영한 이후에도 남는 격차
- 시간의 불일치(Time Mismatch)도 핵심 제약. 신규 구리 광산은 발견에서 생산까지 평균 17.5년이 소요돼 빠르게 증가하는 전력망·AI 인프라 수요를 신규 광산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움
- 따라서 해법은 '신규 광산 vs 재활용'의 선택이 아니라 동시 확대. 재활용은 1차 공급을 대체하기보다 공급 탄력성을 보완하는 Secondary Supply이며, 도시광산 투자 논리의 출발점

글로벌 구리 수급 전망: 재활용 확대에도 2040년 약 10Mt 부족



주: 2030, 2040년은 Base case 기준 전망치
자료: S&P Global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신규 구리 광산의 시간 병목: 발견에서 생산까지 평균 약 17.5년

단계	1	2	3	4	5	6
	Discovery	Exploration	Feasibility	Permitting	Construction	Production
주요 내용	광산 발견, 유망 지역 식별	상세 탐사, 자원량 추정	경제성 평가, 광산 설계, 타당성 조사	환경영향평가, 법적/행정적 인허가	인프라 구축, 광산 및 설비 건설	상업 생산 개시
	발견부터 생산까지 평균 소요 기간: 약 17.5년					
		탐사, 타당성 조사, 환경평가, 법적·행정적 절차 등 평균 소요 기간: 12년 이상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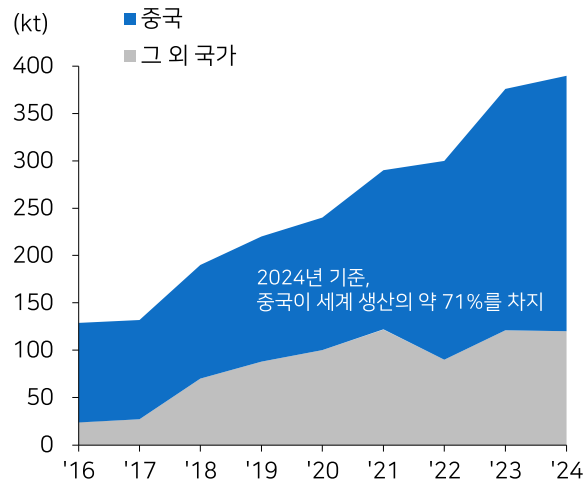
자료: S&P Global Market Intelligence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희토류: 다운스트림으로 갈수록 더 좁아지는 공급망

The ESGverse
Urban Minin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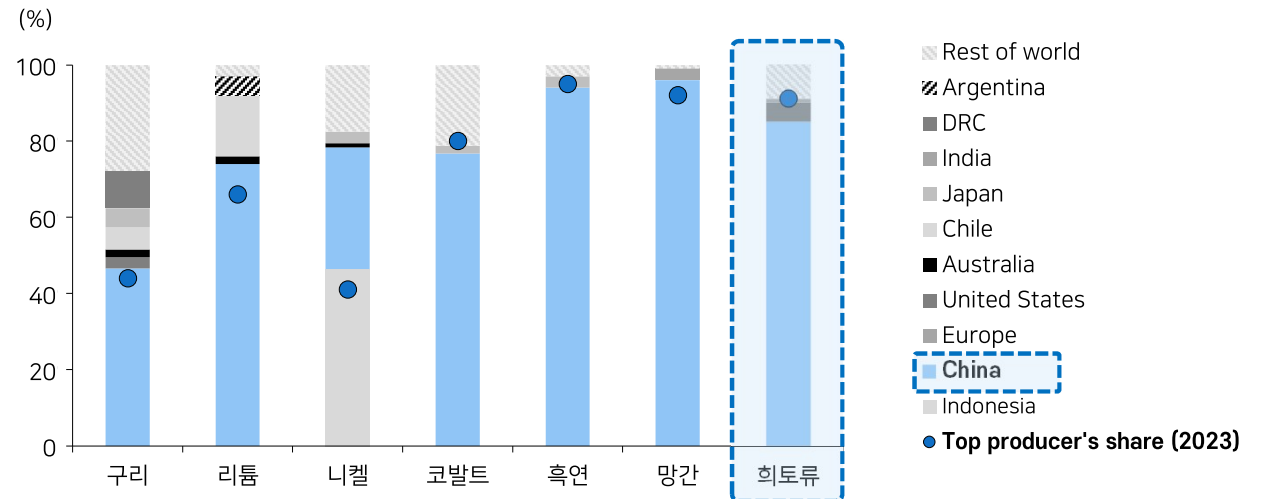
- 중국은 희토류 매장량 4,400만톤을 보유해 세계 매장량의 약 절반을 차지.
그러나 희토류의 병목은 매장량 자체보다 가공 단계에서 심화
- 자석용 희토류 기준 2024년 중국 비중은 채굴 60% → 정제 91% → 영구자석 제조 94%. 광산확보만으로 공급망 다변화가 완성되지 않으며, 분리·정제하고 자석으로 전환하는 역량에서 공급망 집중이 더욱 심화
- Upstream 다변화의 신호는 나타나고 있으나 Downstream 전환은 여전히 느림. 미국, 호주, 말레이시아 등 비중국 프로젝트 확대에도 분리, 정제 및 자석 생산능력 구축에는 추가 투자와 시간이 필요

희토류 광산 생산량



주: 중국 데이터는 생산 쿼터 기준이며, 미보고 생산량은 제외함
자료: U.S. Geological Survey (USGS)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대부분의 광물에서 정제(refining) 단계의 집중도는 2023년 대비 2025년에 더 상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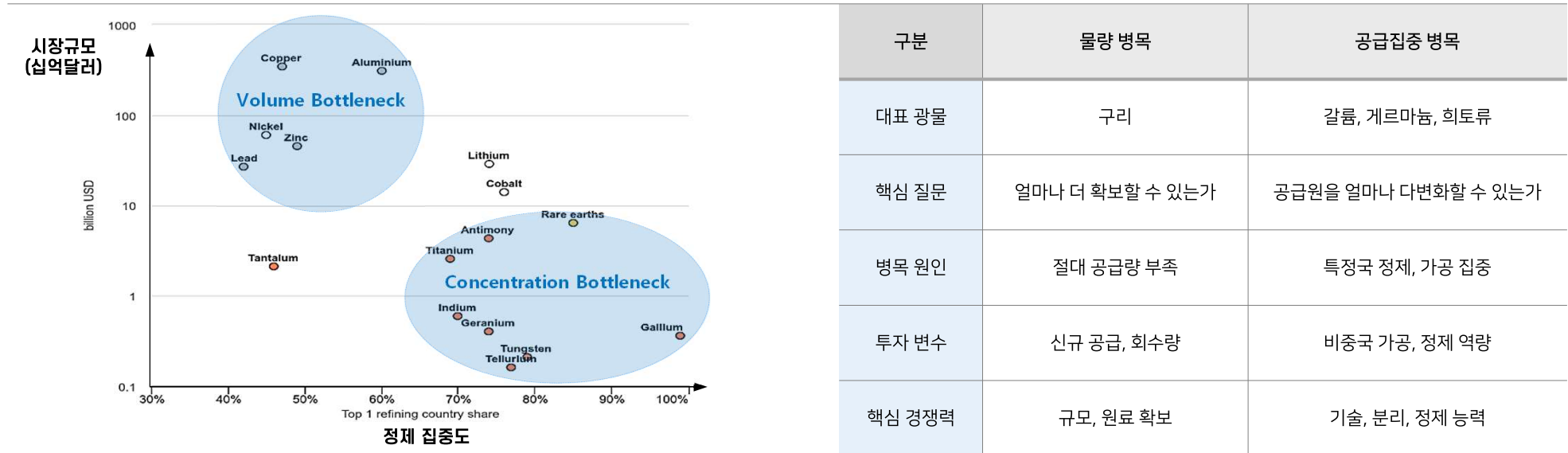
주: DRC는 콩고민주공화국을 의미. 흑연(Graphite)은 배터리용 구형 흑연과 합성 흑연 기준.
희토류(Rare earths)는 자석용 희토류만을 포함하며, 미국·말레이시아 증산으로 2023~2025년 집중도 소폭 하락
자료: IEA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모든 핵심광물이 같은 투자기회는 아니다

The ESGverse
Urban Mining

- 핵심광물의 투자매력은 수요 증가율만으로 결정되지 않음. 시장규모, 공급부족, 정제 집중도, 대체가능성, 재생원료 공급 여력을 함께 평가할 필요
- 물량 병목과 집중 병목은 서로 다른 해법이 필요. 구리처럼 1차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광물은 신규 공급과 재생 공급 확대가 중요하고, 희토류·흑연 등은 정제·가공 집중을 완화하는 공급망 다변화가 핵심
- 따라서 다음 투자축은 ‘더 많이 채굴하는 것’ → ‘이미 존재하는 자원을 다시 공급망으로 돌리는 것’으로 확장
- 도시광산은 구리와 같은 물량 병목에는 공급량 보완, 희토류와 같은 집중 병목에는 비중국 공급원 확보
→ 재생원료와 도시광산은 1차 공급을 대체하기보다 공급 충격을 완화하는 전략적 완충재로 부상

핵심광물의 병목 지도: 시장규모와 공급집중도로 구분



자료: IEA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K-GX, 도시광산을 핵심광물 순환공급망에 편입

The ESGverse
Urban Mining

- K-GX는 핵심광물 회수기술 개발, 산업별 순환공급망 구축을 통해 재활용을 폐기물 처리 중심에서 전략자원 확보 산업으로 확장하는 정책 기반
- 공급망 구축: 철스크랩·재생알루미늄·희토류 영구자석 등 산업별 순환공급망 구축, 재생원료 인증체계 마련 추진
- 기술 상용화: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, 폐모터·폐배터리 해체 자동화 등 회수, 분리, 정제 공정의 기술 고도화 지원
- 산업화 기반: 순환원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, 시설·장비 지원 및 규제특례를 통해 재생원료 공급망의 사업화 기반 강화

K-GX, 핵심광물 회수·정제부터 재생원료 공급망까지 산업화 지원

3대 추진 방향 + 정책 과제	방향	과제명	주요 내용	업종	주요 내용	도시광산, ESG 투자 시사점
	신성장동력 K-GX	1. 산업 구조의 탈탄소 전환	① [산업] 多배출 5대 업종의 녹색 대전환 ② [수송] 무탄소 모빌리티 전환 가속화 ③ [에너지] '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④ [농림·해양] 자원 원료화 및 친환경 전환	철강	전기로 전환 지원을 위한 '고품질 철스크랩' 유통 플랫폼 구축	스크랩 고도화: 선별, 가공, 품질관리 역량 부각, 저탄소 철강 원료 공급망 확대
		2. 녹색제조 3대 강국 도약	① 국가대표 10대 녹색산업 육성 ② 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 성장 촉진 ③ GX 밸류체인 구축	자동차	자동차용 재생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폐차 스크랩 순환공급망 구축	폐차 자원화: 구리, 알루미늄 등 회수 확대 및 자동차용 재생원료 공급 기회
		3. 미래시장 조성 및 인력양성	① 탈탄소 제품 新시장 창출 ② GX 전략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③ GX분야 미래 전문인력 양성	전기전자	전기차, 로봇 등 첨단산업에서 수요가 높은 희토류 영구자석의 공급망 구축	전략광물 회수: 폐모터, 폐자석의 희토류 회수, 정제 역량과 공급망 다변화 가치 부각
	모두의 K-GX	4. 지역성장 견인 GX	① 5국 3특 연계 지역특화 GX 산업 육성 ② 산단·클러스터의 전환기반 조성 ③ 국토·도시·공간의 GX 추진	로봇	방산기계·폐차·폐가전 등의 고부가 재생원료를 로봇용으로 공급하는 비축체계 구축	고부가 소재화: 회수금속의 로봇용 소재 고도화 기회 및 원료 조달 안정성 강화
		5. 상생과 포용의 GX	① 기후리스크 대응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② 대·중소 협업 등 중소·중견기업 전환 지원 ③ 전환산업·근로자 지원 강화	석화·섬유	기업에 재생원료 등 대체원료 공급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및 보증제도 완비	순환원료 시장 확대: 재생원료 추적, 인증, 거래 기반 강화, 자원효율성과 공급망 투명성 제고
		6. 국민참여의 GX	① 국민참여 실천모델 발굴·확산 ② 국민 체감형 GX 사업 확대			
	K-GX 지속가능한	7. 전폭적 정부 지원	① 10년간 대규모 재정투입 및 혁신사업 도입 ② 세제·규제개선 등을 통한 혁신환경 조성 ③ 탈탄소 혁신 기술개발의 전략적 지원			
		8. 민간 투자 생태계 조성	① 기후금융 대규모 공급 및 활성화 ②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③ 탄소감축 기술시장 활성화			
		9. 제도적 기반 마련	① GX 법적근거 마련 ② 거버넌스 구축			

자료: 정부 관계부처합동, “녹색 혁신으로 경제 大도약 「한국형 녹색대전환(K-GX) 전략」”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도시광산을 산업으로 만든 세 가지 모델

The ESGverse
Urban Mining

- 글로벌 선도기업은 기존 자산과 원료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폐기물을 다시 금속 공급망에 연결
 - ① 통합 제련형(Integrated Smelter):
Aurubis는 기존 제련소에 정광뿐 아니라 스크랩·전자폐기물을 투입해 구리와 귀금속을 함께 회수
 - ② 폐쇄형 순환회수(Closed-loop Recovery):
Umicore는 폐촉매, 귀금속 등 고부가 원료에서 금속을 회수해 다시 고객 공급망으로 연결
 - ③ 산업 부산물 회수형(Residue-to-Metal):
Befesa는 전기로 제철소에서 반복 발생하는 제강분진(Steel Dust)을 확보해 아연 등 산업원료로 전환

글로벌 도시광산 3대 사업모델: 원료, 회수금속, 핵심 경쟁력 비교

구분	통합 제련형	폐쇄형 순환회수	산업 부산물 회수형
대표 기업	Aurubis	Umicore	Befesa
사업모델	기존 제련소에 정광과 함께 스크랩·전자폐기물 등 복합 재생원료를 투입해 주금속과 부산금속을 함께 회수	폐촉매·귀금속 등 고부가 원료에서 금속을 회수해 다시 고객 공급망으로 연결하는 순환 모델	제철소 등에서 발생하는 산업 부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아연 등 금속원료로 전환
주요 원료	정광, 구리 스크랩, 전자폐기물, 산업 부산물	폐촉매, 배터리, 전자폐기물	제강분진, 산업 폐기물
주요 회수금속	Cu, Au, Ag, Ni, Sn, Zn 등	PGM, Au, Ag, Ni, Co 등	Zn, Pb, Fe 등
핵심 경쟁력	기존 제련자산 + 복합원료 처리	고부가 금속 회수 + 고객 재공급	안정적 원료 확보 + 반복적 처리

자료: 각 사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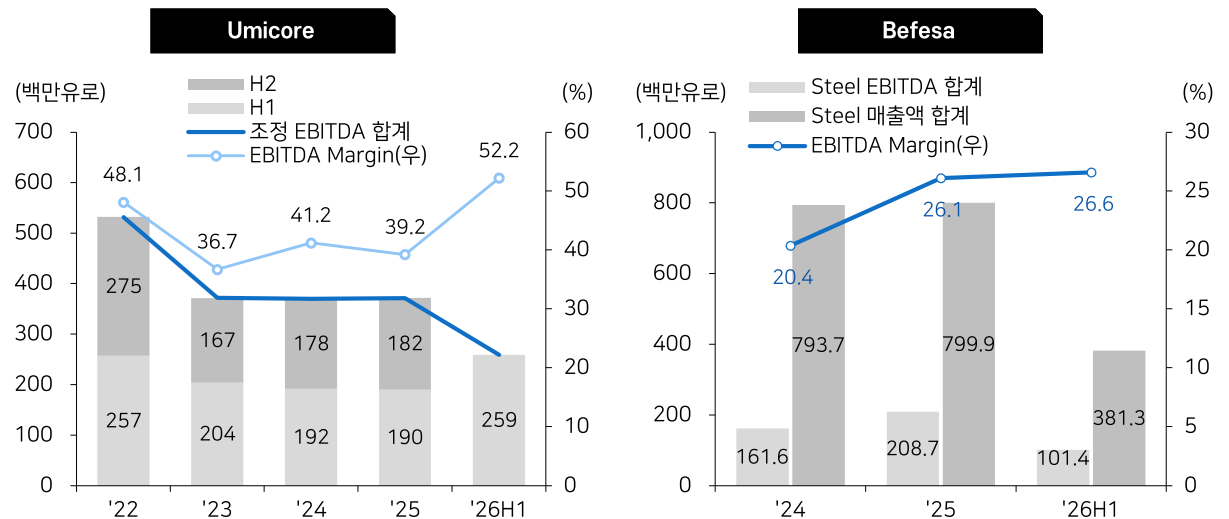
고부가 회수 vs. 대량 부산물 회수: Umicore, Befesa

The ESGverse
Urban Mining

- 리사이클링이라는 동일한 산업 안에서도 어떤 원료를 확보하고 어떤 금속을 회수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수익구조는 크게 달라짐
- Umicore는 폐촉매나 귀금속 등 복합 원료에서 PGM, 귀금속을 회수하고 금속관리까지 연결하는 고부가 회수 & 폐쇄형 순환(Closed Loop) 모델
- Befesa는 전기로(EAF) 제철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제강분진을 확보하고 Waelz 공정을 통해 아연을 회수하는 산업 부산물 회수 모델
- 수익 원천의 차이: 유미코어는 회수금속 가치와 금속가격 vs. 베페사는 안정적인 제강분진의 조달, 가동률, 아연가격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수익성 변수

도시광산의 두 가지 수익모델 비교

구분	Umicore	Befesa
원료 발생처	자동차, 화학, 전자 등 제품/고부가 산업	철강 등 대형 산업공정
대표 원료	폐촉매, 귀금속 함유 폐기물 등	제강분진(Steel Dust)
원료 특성	양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금속가치가 높음	대량 · 반복 발생, 원료 확보가 안정적
주요 회수금속	PGM, Au, Ag 등	Zn 등
핵심 기술	복잡한 원료에서 고부가 금속을 높은 회수율로 분리, 정제	Steel Dust를 대규모 · 효율적으로 처리
고객 관계	회수한 금속을 다시 고객에게 공급하는 폐쇄형 순환 모델	제철소에서 폐기물을 받아 처리하고 회수금속을 판매
핵심 수익변수	회수금속 가치 × 회수율 × 금속가격	처리량 × 가동률 × 아연가격



자료: Umicore, Befesa,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From Proof to Portfolio: 도시광산 투자 체크포인트

The ESGverse
Urban Mining

- 도시광산의 성장성만으로 투자대상을 고르기보다, 광물 병목에 대한 노출도와 이를 실제 공급으로 전환할 역량을 함께 평가할 필요
- **병목 노출**
광물의 물량(Volume), 전략광물의 공급집중(Concentration), 제련·정련 등 가공(Processing) 중 어떤 병목에 노출되는지 확인
- **전환 역량**
원료 → 처리 → 회수 → 고객 및 판매처 확보가 연결된 기업일수록 Secondary Supply 확대의 실질적 수혜 가능성이 높음
- **실적 검증**
CAPA 발표보다 실제 처리량 증가(Ramp-up) → 가동률 확대 → EBITDA, ROCE 증가 → FCF 증가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구조적 성장과 실제 수익성을 구분할 수 있음

도시광산 투자 프레임워크

단계	투자 판단	핵심 체크포인트
① 병목 노출	어떤 광물 공급망의 병목을 해결하는가?	물량: 구리 등 / 공급집중: 희토류 등 / 가공 병목: 제련, 정련, 분리 인프라
② 전환 역량	폐기물을 실제 산업용 금속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?	원료 확보(Feedstock) / 처리 · 정제(Processing) / 회수(Recovery) / 판매처(Offtake)
③ 실적 검증	설비투자가 실적과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는가?	Ramp-up → 가동률, EBITDA · ROCE / 현금흐름(FCF)

자료: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From Proof to Portfolio: 관련 ETF별 노출도 비교

The ESGverse
Urban Mining

- 도시광산에 특화된 순수 ETF는 아직 부재. 따라서 전환 역량을 갖춘 개별 기업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유효
- **Mining Exposure (COPX, ICOP)**
구리 ETF는 핵심광물 수요 확대에 투자하나, 신규 채굴과 1차 공급망에 대한 노출이 중심
- **Processing Exposure (REMX, SETM)**
희토류·전략광물 ETF는 일부 정제·가공 기업을 포함하지만, 도시광산과 재생원료 회수에 대한 직접 노출은 제한적
- **Urban Mining Exposure (REUS)**
순환경제 ETF는 재활용 산업에 접근할 수 있으나, 재활용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을 포함 가능 → 금속회수, 제련에 특화된 투자수단과는 구별

관련 글로벌 ETF

투자축	ETF	티커	AUM (십억달러)	보수 (%)	주요 투자 노출	도시광산과의 연계점
구리	Global X Copper Miners ETF	COPX	7.3	0.65	글로벌 구리 광산, 생산기업	- 구리 수급 병목에 대한 투자, Mining 중심 - 재활용, 제련 직접 노출은 제한적
구리 · 비철	iShares Copper and Metals Mining ETF	ICOP	0.48	0.47	글로벌 구리, 금속 광산기업	- 구리 병목에는 직접적 - Secondary Supply 노출은 낮음
핵심광물	Sprott Critical Materials ETF	SETM	0.49	0.65	구리, 우라늄, 리튬, 희토류 등 핵심광물	- 광물 범위가 넓음 - 도시광산 테마 순도는 낮음
희토류 · 전략광물	VanEck Rare Earth/Strategic Metals ETF	REMX	1.66	0.53	희토류, 전략광물의 생산, 정제, 재활용	- 주로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투자 - 금속 처리(Processing)까지 포함하지만 1차 채굴과 공급 비중도 큼
순환경제	VanEck Circular Economy UCITS ETF	REUS	0.019	0.40	재활용 · 폐기물 감축 · 자원효율 기업, 순환경제 관련 글로벌 기업	- 재활용을 포함한 광범위한 순환경제 노출 - AUM이 작아 유동성 주의 - 테마는 가장 가깝지만 금속 재활용에 특화되지 않음

주: AUM은 2026.10.13일 기준

자료: Bloomberg, Global X, BlackRock, Sprott, VanEck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▪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
▪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▪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
▪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

투자등급 관련사항 (2023년 8월 4일부터 기준 변경 시행)				투자의견 비율	
[기업]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				투자의견	비율
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종가대비 3등급	Buy	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(20 거래일)간 평균종가대비 +20% 이상		매수	91.9%
	Hold	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(20 거래일)간 평균종가대비 -20% 이상 ~ +20% 미만		중립	8.2%
	Sell	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(20 거래일)간 평균종가대비 -20% 미만		매도	0.0%
[산업]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 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				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	
추천기준일 시장지수대비 3등급	Overweight (비중확대)	Neutral (중립)	Underweight (비중축소)		